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가정교과 가족분야의 내용변천에 관한 연구  
- 제1차~2007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김지욱\* · 전미경\*\*<sup>1)</sup>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

A Study on the Change of Family-related Contents in Home Economics  
by National Curriculum  
- Focus on the 1st~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Kim, Ji-Wook\* · Jun, Mi-Kyung\*\*<sup>1)</sup>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give a broad overview of family-related contents in home economics from the 1st national curriculum to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reby contributing to value fulfillment, textbook research, and educational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The findings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is study looks at the change of family-related goals and contents in home economics tutorials by national curriculum. Family-related goals shift a focus from a member of nation to individual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scope of family-related contents expands from a part of family (i.e. understanding of children) to every aspect of family life. Second, family-related contents record a higher share in home economics textbooks at the later stage of national curriculum.

---

1) 교신저자: Jun, Mi-Kyung,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26, Pil-dong 3-ga, Chung-gu, Seoul, 100-715, Korea  
Tel: 02-2260-3889, Fax: 02-2265-1170, E-mail: mkjun@dongguk.edu

Third, this study classifies the change of family-related contents in home economics textbooks by national curriculum into seven categories: understanding of human development, process of human development, parenting and parental roles, understanding of family and family transition,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family relationship and issues, and family well-being. In particular, 'understanding of human development' underscores fundamental principles between the 3rd~6th national curriculum, 'process of human development' broadens its initial focuses on infancy and the preschool period to every scope of human development after the 5th national curriculum, 'Parenting and parental role' continues to stress parental roles and duties plus childcare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In 'understanding of family and family transition,' national curriculums show the biggest difference in family perspectives subject to social change, and later national curriculums feature various family types recently on the rise. In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initial national curriculums construe marriage as a necessity, whereas later national curriculums emphasize it as a matter of choice intertwined with mature love and responsibility. With coming under spotlight in recent national curriculum, 'family relationship and issues' highlights communication and family views based on gender equality for family unity. 'Family well-being' constitutes a pivotal part in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it has recently emerged as the hottest issue in the family area as it presents lifelong welfare.

**Key words:** 가정교과 교육과정(home economic subject curriculum), 가정 교과서(home economic textbook),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가족학(family science),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학교교육과 거의 동시기에 출발한 가정교과는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명 및 교과 목표에서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추구한 교육목표는 합리적인 가정생활,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 개인·가족·사회의 관계의 이해였다(Lee et al, 200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총 아홉 번의 개정을 거쳤다. 그 가운데 2007개정 교육과정은 제 7차 교육과정이 발표된 지 약 10년 만에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개정 배경의 하나가 최근 우리사회의 변화에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혼율 증가 및 가족폭력과 청소년 문제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및 가족형태와 가족생활 양식이 매우 다양해지는 등의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가족은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이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집단보다 친밀한 정서적 관계가 기대되는 곳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은 경제·정치·종교·교육제도 등과 같이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교과에서 가족분야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항구적 내용요소가 있는 반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강조되거나 추가되는 내용요소가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은 가족생활 분야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개정이었다.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내용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통합되었고, 학생들이 직면하는 가족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자의 '체험중심 학습'과 '실천적 추론 학습'이 강조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3~4). 또 아직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은 2009개정 교육과정 역시 "학습자의 경험을 통하여 당면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게 함으로써 자립적인 삶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5~6).

한편, 가정교과의 내용영역은 교육과정별 차이가 있는데 초기

교육과정의 경우 다루는 내용이 많았으나 점차 줄어들어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가족생활, 식생활, 의생활, 가정관리와 소비생활, 주생활의 5개 중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인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생활 영역은 인간발달학과 가족학이란 학문을 기축으로 가정교과의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 이때 인간발달은 인간발달의 기초와 인간발달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인간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특성과 문제를 다루며 또한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다루는 학문을 말한다. 또 가족학은 가족의 기본 개념 및 가족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의 특성과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다루고, 사랑, 성,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과 결혼을 포함하는 가족발달과정을 다루고 있다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08:61). 인간발달과 가족학은 하위 영역에 따라 사회의 변화와 무관한 학습 내용이 있는 동시에 사회 변화에 따라 강조점과 관점이 크게 달라지는 학습 내용이 있다. 특히 가족학 내 하위 범주는 학습내용의 가감과 함께 관점변화가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이 학문의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목표로 최근에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가정교과 교육과정해설서 및 가정교과서 내에서 ‘가족분야’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과정해설서 및 가정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과정해설서와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중추적 핵심요소이다.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교육과정은 해설서에 특정한 학년과 학생들의 위한 구체적 교육계획을 담고 있으며(Chae, 2011), 교과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해설서 및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가족분야’의 교육 목표 및 실제적 내용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해설서 및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가족분야’란 인간발달의 이해, 인간발달 과정, 부모됨과 부모역할,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결혼과 가족발달, 가족관계와 가족문제, 가족복지와 관계된 영역을 지칭한다.

지금까지 가정교과서를 분석한 연구가 적지 않으며, 소수이지만 교과과정시기에 따른 특정 분야의 학습내용 변천과정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 예를 들면 Lee (2001)는 가정관리, Ko(1990)은 의생활, Bu(1992)는 식생활, Kim(1989)은 주생활에 주목해 교육과정에 따른 하위 내용의 변화에 주목했다. 또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에 주목해 교육과정변천에 따른 통시적 흐름을 분석한 전정선(1999)의 연구가 있으나, 이는 제1차~제6차까지의 양적인 비중에 초점을 둔 연구로 본 연구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 그 밖에 Choi(2002) and Kim(2007)의 연구도 가족분야를 중심으로 가정교과서를 분석하였으나 특정 교육과정 시기의 분석이거나 외형적 측면의 분석에 치우쳐 있어서, 전체 교육과정 내 가족분야 변화의 흐름과약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제1차~2007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 가족분야의 내용요소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초점이 되는 기간이 1954년(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7년(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 있으며, 교육과정별 교과서 역시 1종만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제1차~2007개정까지의 중·고등학교 1~3학년 교과서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정교과 세부 영역인 의·식·주·가정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학습내용에 초점을 둔 연구가 있는데 가족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부재하는 측면에 주목하여, 교육과정별 해설서 및 교과서의 가족분야 비중과 내용의 전체적 흐름을 정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제1차~2007개정 교육과정의 ‘가족분야’의 내용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가족분야’의 가정교과서 내 비중 및 내용요소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정교과 내 가족분야의 내용의 전체 내용요소 뿐 아니라 교과과정의 개정과 무관하게 중시되는 핵심적 내용요소는 무엇인지, 또 특정 내용요소가 언제 사라지고 또 언제 새롭게 강조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과정별 가족분야의 통시적 접근은 내용요소의 전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가족분야는 인간발달 영역과 가족학 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태내기부터 노인기까지 신체·인지·사회정서적 발달의 본질적 측면을 다루는 인간발달 영역은 사회변화와 무관한 것이기에, 이 영역

의 통시적 접근을 통해서 내용요소 자체의 변화 보다는 어떤 단계와 어떤 영역의 발달이 중시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가족학 영역의 경우, ‘가족’이 사회의 변화와 무관한 실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체라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Yoo, 2004), 이 분야의 하위 내용요소가 교육과정에 따라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에 대한 통시적 접근은 사회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 및 가정교과에서 가족생활에 필요한 개인의 기능과 태도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내용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가정과 교육과정해설서 및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이 어떻게 변천하였는지 고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제1차~2007개정 가정교과 교육과정해설서 내 가족분야의 내용과 그 변화는 어떠한가?
2. 제1차~2007개정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은 어떠한가?
  - 2-1. 제1차~2007개정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의 비중은 어떠한가?
  - 2-2. 제1차~2007개정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변화는 어떠한가?

## 3. 선행연구 고찰

최근 들어 가정교과의 교육과정해설서나 교과서를 내용분석을 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2년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은 제5차와 달리 가정교과서가 1종이 아닌 검정교과서화 되면서 여러 출판사에서 발행했고,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변화는 교육과정해설서 및 교과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과서만 하더라도

중학교 1, 2, 3학년이 각 12종, 고등학교 1학년이 6종이고, 2007개정 교육과정의 경우는 중학교 1, 2, 3학년이 각각 12종, 11종, 7종, 고등학교 1학년이 6종으로, 동일 학년에 여러 종의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교육과정해설서를 기반 해 교과서 내용이 채워진다고 해도, 교과서마다 학습내용의 전개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를 분석 텍스트로 하는 연구는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 여겨진다.

2011년 9월까지 발행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는 모두 61권으로, 여기에 실린 621편의 논문 중 기술·가정교과서를 주된 분석텍스트로 한 연구는 54편이다(Jun, 2012:33). 이들 논문에는 교과서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거나(Goh et al, 2006; Kim, 2007; Yoon, 2004; Jun, 2004; 2005), 동일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비교 분석하는(Kim et al, 2011; Kim, 2010; Son H, 2009; Choi et al, 2008; Choi, 2002)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 가운데 특히 ‘가족생활’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해설서 및 교과서를 분석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기 연구로 Park(1995)은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의 가정교과서 8종을 수업시수, 교과서 집필진과 영역구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전경선(1999)은 제1차부터 제6차 교육과정기의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단원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가정교과서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Choi(2002)는 중학교 가정교과서 내 가족생활 영역을 양적 분석하였고, Yang and Kim(2002)은 중학교 ‘나와 가족생활’ 단원을 구조기능론적 관점으로 분석한 후 이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 밖에 Kim and Yoo(2004)는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제7차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삽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향의 연구 중 본 논문의 주제와 중첩되는 연구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Jung(2004)은 제7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내 ‘가정생활’ 영역 학습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해, 학습내용의 연계성을 발전, 반복, 격차, 축소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연계성에서 발전을 보인 내용은 인간발달의 특징, 의사소통의 방법과 유형,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결혼의 의미, 가정생활의 변화, 가족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 아동 양육에 관한

내용이었고, 반복을 보인 내용은 인간발달에 관한 개념과 같이 대부분 개념의 정의 및 의미에 대한 설명 부분이었다. 격차는 가족관계의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축소는 인간발달의 내용 구성, 청소년기 발달 특성 등에 관한 내용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습내용이 반복되거나 심화 발전된 내용이 격차를 보이거나 축소된 내용보다 많으므로 가정교과의 ‘가족 관계’ 영역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은 대부분 연계성을 이룬다고 결론 내렸다.

또 Kim(2007)은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분류하여 12종 교과서의 ‘가정생활’ 영역 내용 및 체계를 분석하였다. 주요연구 내용으로는 집필자의 소속, 교과서 전체 쪽수, 단원별 체계, 목차구성, 교과서 평균 비중, 단원별 내용구성 및 참고자료, 교과서 간의 그림과 표 등의 차이 비교였다. 그 외 Kim(2010)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와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관련 단원에서 가족이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되어 있는지를 구조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정교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은 경우 교과서의 쪽수, 사진, 표 등과 같은 외형적 체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학습내용의 구성이나 교육과정별 학습내용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새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을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한 연구는 있었지만 가족분야의 내용을 제1차부터 2007개정까지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제1차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가족분야’의 학습내용 흐름을 교육과정해설서와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는 교육과정별 해설서와 교과서를 통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초보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비록 초기 교육과정의 학년별 교과서를 찾지 못하거나 3종의 교과서를 모두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할지라도 전체 교과서 중 ‘가족생활’ 내용의 비중은 어떠한지, 또 ‘가족생활’에 관한 학습내용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 파악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I. 연구방법

### 1. 분석 텍스트

제1차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가정교과 내 가족분야의 내용 및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는 교육과정해설서와 가정교과서를 분석 텍스트로 삼았다. 먼저 교육과정해설서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kice.re.kr>)에 탑재된 교육과정해설서를 분석하였다. 또 교과서의 경우는 교육과정별로 3개 출판사를 선정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제1차와 제2차 가정교과서는 중·고등학교 학년별로 3종의 교과서를 찾을 수 없어 1~2개의 교과서만 분석한 경우가 있으며, 제3차~제5차는 국정교과서로 1종만 발행되었기 때문에 1종의 교과서만 분석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의 가정교과서는 출판사별 발행이 몇종인지 대략적으로는 확인가능하나 학년별로 발행종이 달라 전체 발행종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3개의 출판사를 임의로 선정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제1차부터 2007개정까지 중학교 교과서 37권과 고등학교 교과서 21권, 총 58권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1학년 17권, 2학년이 9권, 3학년 11권을 분석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만 학년별로 교과서가 발행되었기에, 1학년이 2권, 2학년은 1권을 분석했다. 제3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학년으로 나뉘지 않고 한권으로 통합되었고, 여기에서는 18권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교과서 목록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중고등학교 분석대상 교과서

교육과정	학년	교과서명	저자	출판사명	발행일	교육과정	학년	교과서명	저자	출판사명	발행일
제 1 차	1	이상적인 가정생활	표경조 외 7	장왕사	1960.3.10	제 1 차	-	자료 없음*	-	-	-
		새로운 가정	장명옥 외 1	영지문화사	1957.3.25						
	즐거운 가정생활	조기홍 외 3	정음사	1961.3.05							
	2	이상적인 가정생활	표경조 외 7	장왕사	1963.1.10						
		새로운 가정	장명옥 외 1	영지문화사	1957.3.25						
3	이상적인 가정생활	표경조 외 7	장왕사	1963.1.10							
제 2 차	1	새로운 중학가정	김분옥 외 2	민중서관	1968.1.10	제 2 차	1	표준 가정일반	장명옥 외 4	어문각	1970.1.10
		현대가정	이홍수 외 4	문화당	1970.1.10			즐거운 가정일반	강한월 외 6	신구문화사	1975.1.10
	2	새로운 중학가정	김분옥 외 2	민중서관	1976.1.10		2	표준 가정일반	장명옥 외 4	어문각	1972.1.10
		현대가정	이홍수 외 4	문화당	1970.1.10						
		표준중학가정	장명옥 외 4	요산문화사	1974.1.10						
	3	새로운 중학가정	김분옥 외 2	민중서관	1966.1.20						
현대가정		이홍수 외 4	문화당	1970.1.10							
표준중학가정		장명옥 외 4	요산문화사	1974.1.10							
제 3 차	1	가정	장명옥 외 14	문교부	1979.3.1	제 3 차	고등	가정	서병숙 외 4	정음사	1981.3.1
	3	가정	장명옥 외 14	문교부	1979.3.1			가정	주월영 외 6	교학사	1980.3.1
								가정	장명옥 외 9	요산 문화사	1980.3.1
제 4 차	1	가정	김숙희 외 5	문교부	1986.3.1	제 4 차	고등	가정	서병숙 외 6	동아출판사	1984.3.1
								가정	주월영 외 7	장왕교재 연구원	1988.3.1
								가정	유송옥 외 7	교학사	1984.3.1
제 5 차	1	가정	이순원 외 5	문교부	1989.3.1	제 5 차	고등	가정	서병숙 외 6	동아출판사	1990.3.1
								가정	이영숙 외 6	지학사	1990.3.1
	2	가정	이순원 외 5	문교부	1990.3.1			가정	강신주 외 6	장왕교재 연구원	1990.3.1
제 6 차	1	가정	이순원 외 4	두산동아	1995.3.1	제 6 차	고등	가정	서병숙 외 6	두산동아	1998.3.1
		가정	최영희 외 5	지학사	1995.3.1						
		가정	이승신 외 4	천재교육	1995.3.1						
	3	가정	이순원 외 4	두산동아	1997.3.1			가정	김은애 외 6	지학사	1996.3.1

		가정	최영희 외 5	지학사	1997.3.1			가정	이승신 외 6	천재교육	1996.3.1
		가정	이승신 외 4	천재교육	1997.3.1						
제 7 차	1	기술·가정	이상혁 외 11	두산	2001.3.1	제 7 차	고등	기술·가정	이상혁 외 10	두산동아	2011.3.1
		기술·가정	김관욱 외 8	지학사	2001.3.1			기술·가정	김기수 외 6	지학사	2011.3.1
		기술·가정	이승신 외 7	천재교육	2001.3.1			기술·가정	이승신 외 6	천재교육	2011.3.1
2 0 0 7 개정	1	기술·가정	정철영 외 16	두산동아	2010.3.1	2 0 0 7 개정	고등	기술·가정	정철영 외 16	두산동아	2011.3.1
		기술·가정	김종명 외 7	지학사	2010.3.1						
		기술·가정	이승신 외 7	천재교육	2010.3.1						
	2	기술·가정	정철영 외 16	두산동아	2011.3.1			기술·가정	한경혜 외 7	지학사	2011.3.1
		기술·가정	김종명 외 7	지학사	2011.3.1						
		기술·가정	이승신 외 7	천재교육	2011.3.1						
	3	기술·가정	정철영 외 16	두산동아	2012.3.1			기술·가정	이승신 외 7	천재교육	2011.3.1
		기술·가정	윤인경 외 7	교학사	2012.3.1						
		기술·가정	이승신 외 7	천재교육	2012.3.1						

\* '자료없음'이란 교육과정해설서 내 '가족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은 있으나 교과서를 구하지 못했음을 의미함.

## 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가정교과 교육과정 해설서와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를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 분석이란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변수들의 빈도와 분포 등을 개략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Cho, 1991). 이 연구에서는 빈도분석을 통해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의 비중을 다루었다. 제1차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가정교과서의 크기는 두 개로 나뉘지는데, 제1차~제6차까지는 국판(148×210)인 반면 제7차부터는 4×6배판(188×254)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교과서 크기의 변화는 본 연구결과와 무관한데,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전체 교과서 페이지 중 가족분야 페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페이지 빈도를 통해 비중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때 가족분야의 학습내용은 대개 소단원별로 제시되었고, 새로운 단원은 페이지를 달리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분야가 몇 페이지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지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또 제1차와 제2차의 경우 '가정관리'나 '가정경영' 단원에 가족분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내용 역시 중·소단원별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페이지 산출에 문제가 없었다. 이에 비해 제7차와 2007개정 교과서는 기술교과가 더해진 기술·가정 교과서로 기술·가정의 전체 페이지 가운데 가족분야를 산출할 경

우 기술영역이 더해진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제7차와 2007개정의 경우 전체 페이지는 기술영역이 제외된 가정영역만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는 내용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내용분석은 연구하려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된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이용한 실증 연구라 할 수 있다. 내용분석에서는 특히 분석기준과 분석단위가 중요한데, 분석기준은 구체화된 분석범주로서 포괄적이며 상호배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Cho, 1991). 이 연구에서는 제1차~2007개정 교육과정해설서 및 가정교과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52년에 걸쳐 발행된 가정교과서의 전개양상 및 학습내용은 교육과정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가정교과 교육과정해설서 및 가정교과의 내용변천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전개양상과 학습내용을 일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일관된 틀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타당도 있는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2008년 발표된 '가정과 교사자격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기준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을 재구성하였다.

2008년 발표된 '가정과 교사 자격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기준(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08)은 예비교사의 자격기준을 세우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본 연구가 이 상세화 기준에 주목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 상세화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아래 가정교과 및 내용학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결과라는 점이다. 상세화 기준은 가정교과의 내용학 분야를 ①영양학, 식품과 조리, ②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③주거와 실내 디자인, ④가정경영, 소비자학, ⑤아동학, 가족학의 5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또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아동학, 가족학 영역은 다시 2개(인간발달, 가족학)의 대영역, 7개(인간발달의 이해, 인간발달 과정, 부모됨과 부모역할,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결혼과 가족발달, 가족관계와 가족문제, 가족복지)의 중영역, 그리고 56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추출된 대·중·소영역은 가정교과에서 다루는 가족분야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의 내용학 전문가들에 의해 추출되고 분류되었다는 점에서 타당성 있는 분류 체계라 여겨졌다. 둘째, 이 상세화 기준에서 도출된 내용요소는 “제7차와 2007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가정교육 영역의 교육내용을 반영”(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08:32)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의 분석의 결과이다. 이처럼 평가 영역 상세화에 제시된 가정교육의 평가

내용요소는 가정과에서 다루는 보편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기능’으로 분별하고 선정하여 질서화하고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요소이다(Chae et al, 201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상세화 기준을 참조하여 분석 기준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대영역과 중영역은 동일하며, 소영역은 교육과정해설서 및 교과서 분석과 무관하거나 지나치게 자세하게 제시된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49개로 나누었다(Table 2 참조). 그리고 이 분석 기준은 가정교과를 전공으로 한 2명의 교수로부터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Table 2 . Analytical standard for curriculum manual and textbook contents

Large area	Middle area	Small area
Human development	Understanding of human development	Concept and characteristics in human development, Perspective of hum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principle, Theory of human development
	Process of human development	Sex, Pregnancy & childbirth, Prenatal stage, Infancy, Babyhood, Childhood, Adolescence, Adulthood·Middle-aged, Elderly,
	Parenthood and parenting	Meaning and motive of parenthood, Characteristic and importance of parenting, Parenting-related factors, Child-rearing behavi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care, Necessity of parent education
Family Studies	Understanding about family and a change in family	Family structure, Family function, Role and authority in family, Family value, Family life cycle, Change of family and society Family life culture, Characteristics in Korean family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Love,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Selection of spouse, Meaning and motive of marriage, Preparation for marriage, Family developmental task and adjustment according to family development stage
	Family relations and family problems	Communication, conflict, Conjugal relations, Parent-child relationship, Sibling relationship,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Dual-income family, Elderly family, Family stress, Family violence, Divorce, Remarriage
	Family well-being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family health, Family law and policy, Basis of family well-being, Family caring according to life cycle, Family well-being service



### III. 연구결과

#### 1. 교육과정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서 내 가족분야의 내용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별 교육과정해설서 가족분야의 학습내용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육과정별로 중학교에서 다루어지던 내용이 고등학교로 옮겨가기도 하고, 반대로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던 내용이 중학교로 이동하는 등 내용구성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먼저 중학교 교육과정해설서부터 살펴보면, 대단원은 보건, 아동보육, 가정관리, 가족생활, 가족, 청소년, 복지 등의 핵심어로 구성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에 더해 가족관계, 육아, 부모, 가족생활의 설계 등으로 확장되었다.

교육과정해설서에서 나타난 대단원을 중심으로 가족분야 학습내용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제1차 교육과정의 가족분야의 대단원은 ‘보건위생’으로, 이 단원은 다시 ‘가정간호’, ‘유아보육’, ‘부인위생’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보건위생에 관한 내용이 가족분야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와 제3차 교육과정은 제1차의 ‘보건위생’ 외에 다른 영역이 추가되거나 ‘보건위생’ 단원에 새로운 영역이 더해지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특히 제2차 교육과정의 경우 ‘아동 보육 및 가족관계’에서 ‘가족과 나’, ‘나와 학교’, ‘어른 섬기기’의 내용이 강조되었다. 또 제3차 교육과정의 경우 아동보육이 육아의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기술되었으며, 이는 ‘육아보건’이라는 대단원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내용은 제4차에서 추가되기 시작하여, 제4차에서 ‘가족생활’ 대단원 속 중단원으로 다루어지던 내용이 제5차에서는 ‘가족원의 성장과 발달’, 제6차에서는 ‘가족에 대한 이해’, 제7차에서는 ‘나와 가족의 이해’, 2007개정에서는 ‘가족의 이해’ 대단원으로 발전하였다. 그 밖에 ‘아동보육’과 ‘가족의 이해’ 소영역은 제2차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내용의 질적 양적 수준이 확대되었다. 즉 제1차~2007개정 교육과정 내 가족분야의 내용은 제1차~제3차까지는 ‘보건위생’과 ‘아동보육’ 및 ‘가정보건’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면 제4차 이후 가족생활의 이해 및 가족관

계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서를 살펴보면, 교육과정별 대단원은 아동보육, 가정보건, 가족관계, 가정생활, 가족발달, 가정생활문화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교육과정별로 고등학교 가족분야의 특징적 일면을 살펴볼 때, 먼저 제1차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은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었다. 1학년과 2학년 과정에는 가족분야 학습내용이 없었으며, 3학년 ‘가정관리’ 단원에 가정생활 및 유아보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아동보육’인데, 중학교와 다른 점은 부모됨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 점이다. 또 제4차에서부터 가족분야의 내용이 ‘가정관리’ 단원에서 분리되어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중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는 고등학교의 학습내용은 결혼, 육아, 부모됨으로,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내용이 미래의 가정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3>와 같다.

#### 2. 교육과정별 교과서 내 가족분야의 비중

교육과정별 가족분야의 내용변천을 추적하고자 한 이 연구에서는 총 58권의 가정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별 교과서 내 가족분야의 비중을 전체 교과서 페이지 가운데 가족분야가 차지한 페이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별 가족분야 비중을 중·고등학교 별로 평균을 중심으로 대별해보고자 한다. 교과서를 찾지 못해 분석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고, 교육과정별 평균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중학교의 경우 제1차 교육과정은 평균 11.6%, 제2차는 9.3%, 제3차는 18.3%, 제4차는 17.8%, 제5차는 14.4%, 제6차는 15.2%, 제7차는 14.0%, 2007개정 교육과정은 35.9%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17.1%이다. 이때 학년별 가족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제1차인 경우 최대 13.9%(장왕사)에서 최소 2.9%(영지문화사)였고, 제2차 2학년의 경우 최대 17.3%(요산문화사)에서 최소 3.6%(문화당)으로 출판사별 차이가 매우 컸다. 따라서 교육과정해설서를 통해 학습내용이 안내된다 할지라도 저자의 강조점에 따라 학습내용의 비중은 교과서별로 큰

Table 3 . Large unit in family field of curriculum manual by curriculum of middle and high schools

Curriculum	Middle school			High school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1st	· Health hygiene	· Health hygiene	· Health hygiene	· Home management
2nd	· Child care and family relations · Family health	· Child care · Family health	· Child care · Family health	· Child care · Family health · Family relations and manners
3rd	· Child-rearing health · Home management	(None of family-field contents)	· Child-rearing health · Home management	· Home management · Family relations · Child-rearing
4th	· Family life	(None of family-field contents)	(None of family-field contents)	· Family and home life · Family relations · Child rearing
5th	· Home life	· Growth and development in family members	(None of family-field contents)	· Essence of family · Family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 Child development · Childbirth and child nursing
6th	· I and home life	(None of family-field contents)	· Understanding about family	· Family relations and life planning · Child development and parenting
7th	· Understanding of me and family	(None of family-field contents)	(None of family-field contents)	· Planning in home life
2007 Revision	·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 Understanding of family	· Home life and welfare	· Future family life · Home life culture

\* In case of the 1st~the 3rd, the large unit includes 'Home management' and 'Family management', but is involved the contents related to family life.

\*\* In case of the 1st high-school curriculum, there are no contents of family field in the 1st grade and the 2nd grade. 'Home management' is the content for the 3rd grade.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출판사별 비중의 차이는 제3차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제3차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4차는 1학년, 5차는 1학년과 2학년에 걸쳐 가족분야의 내용이 전개되었는데 제3차 3학년의 제외하고 대략 15% 전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제6차는 1학년과 3학년, 제7차는 1학년, 2007개정은 1, 2, 3학년에 걸쳐 전개되었고 그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찾을 수 없어 분석하지 못하였고, 제3차는 21.4%, 제4차는 25.3%, 제5차는 23.3%, 제6차는 22.4%, 제7차는 41.0%, 2007개정 교육과정은 62.8%로 점점 증가하였다. 제2차의 경우 3종의 교과서를 찾을 수 없어 출판사별 비중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비교 가능한 2학년에서 최소 14.3%, 최대 23.7%의 비중으로 보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출판사별 가족분야의 비중은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차 교육과정 이후 출판사별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고, 제3차~제6차의 경우 20%대를 유지하다가 제7차부터 비중이 증가하여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최대 66.1%까지 증가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가족분야 비중

(가족분야 페이지 / 전체 페이지)

교육과정	교과서명 (출판사)	중학교 학년			평균	교과서명 (출판사)	고등학교 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1	2	3	
제1차	이상적인 가정생활 (장왕사)	13.9% (27/194)	8.37% (21/251)	12.5% (40/320)	11.6%	-	-	-	자료 없음	
	즐거운 가정생활 (정음사)	3.9% (8/207)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새로운 가정 (영지문화사)	2.9% (5/176)	9.4% (17/181)	자료 없음						
제2차	새로운 중학가정 (민중서관)	7.8% (14/180)	8.9% (18/202)	16.0% (33/206)	9.3%	표준 가정일반 (어문각)	자료 없음	14.3% (32/223)	46.3% (75/162)	
	현대가정 (문화당)	6.9% (10/144)	3.6% (7/196)	12.4% (20/151)		즐거운 가정일반 (신구문화사)	자료 없음	23.7% (92/388)	자료 없음	
	표준중학가정 (요산문화사)	자료 없음	17.3% (34/197)	13.9% (23/166)						
제3차	가정	18.9% (38/201)	-	35.9% (69/192)	18.3%	가정(정음사)	22.9% (81/354)		21.4%	
						가정(교학사)	20.4% (75/360)			
						가정(요산문화사)	20.9% (74/354)			
제4차	가정	17.8% (34/191)	-		17.8%	가정(동아출판사)	24.8% (92/371)		25.3%	
						가정(장왕교재연구원)	25.3% (92/364)			
						가정(교학사)	25.9% (97/374)			
제5차	가정	12.6% (24/191)	16.1% (36/223)		14.4%	가정(동아)	25.7% (88/343)		23.3%	
						가정(지학사)	20.0% (66/330)			
						가정(장왕교재)	24.1% (81/336)			
제6차	가정(두산동아)	20.7% (40/193)	-	31.1% (32/103)	15.2%	가정(두산동아)	24.9% (89/358)		22.4%	
	가정(지학사)	17.7% (34/192)	-	20.4% (22/108)		가정(지학사)	18.3% (65/356)			
	가정(천재교육)	19.8% (38/192)	-	27.0% (28/104)		가정(천재교육)	24.0% (83/346)			
제7차	기술·가정(두산)	39.1% (34/87)	-	-	14.0%	기술·가정(두산동아)	38.8% (47/121)		41.0%	
	기술·가정(지학사)	43.7% (38/87)	-	-		기술·가정(지학사)	41.0% (48/117)			
	기술·가정(천재교육)	43.4% (36/83)	-	-		기술·가정(천재교육)	43.1% (47/109)			
2007 개정	기술·가정(두산동아)	41.7% (48/115)	20.1% (34/169)	54.0% (44/87)	35.9%	기술·가정(두산동아)	58.9% (76/129)		62.8%	
	기술·가정(교학사)	31.8% (41/129)	19.6% (28/143)	42.8% (39/91)		기술·가정(지학사)	63.3% (76/120)			

	기술·가정 (천재교육)	46.3% (56/121)	20.6% (32/155)	46.6% (48/103)		기술·가정 (천재교육)	66.1% (84/127)	
전체					17.1%			32.7%

\* '자료 없음'은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는 교과서 내 가족분야의 내용이 없는 즉 '내용 없음'을 의미함.  
 \* 제4차와 제5차의 경우 중학교 가정은 1, 2학년만 있음.  
 \* 제7차와 2007개정 교과서의 전체 페이지는 기술 영역이 빠진 페이지를 의미함.

한편 3종 출판사의 평균을 내 교육과정별 가족분야 내용을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교과서를 찾지 못해 제1차 고등학교와 제2차 중고등학교 평균은 구하지 못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교의 경우 제2차를 제외하고, 제1차~제7차까지는 대략 10%대에 머물렀으나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크게 증가해 35.9%에 이르렀다. 고등학교의 경우 제3차~제6차까지는 대략 20% 초반 대를 유지하다가 제7차와 2007개정에서 크게 증가해 각각 41.0%와 62.8%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최근의 교육과정일수록 중고등학교 모두 가족분야의 내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교육과정별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의 내용 및 변화

#### 1) '인간발달' 영역의 내용과 변화

교육과정별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의 내용 및 그 변화는 '인간발달' 영역과 '가족학'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간발달 영역을 살펴보면, 이 영역은 '인간발달의 이해', '인간발달 과정' '부모됨과 부모역할'의 3개 중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인간발달의 이해' 영역은 '인간발달의 개념과 특성', '원리', '발달의 견해', '인간발달이론'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인간발달의 이해' 영역은 학문적으로 심도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그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양적으로 적은 분량일지라도 아동발달을 중심으로 발달단계 및 초기발달의 중요성이 제2차부터 조금씩 강조되기 시작해, 제3차~제6차에는 발달과업, 발달원리, 프로이드 이론을 비롯해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발달적 특징이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특히 제5차부터는 성인기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제시되어 신생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인간발달의 전 영역을 다루었다.

둘째 '인간발달과정' 영역은 '성', '임신과 출산',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중년기', '노년기'의 9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초기에는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이 제시되다가 제5차 이후 인간의 전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성'은 주로 청소년기의 2차 성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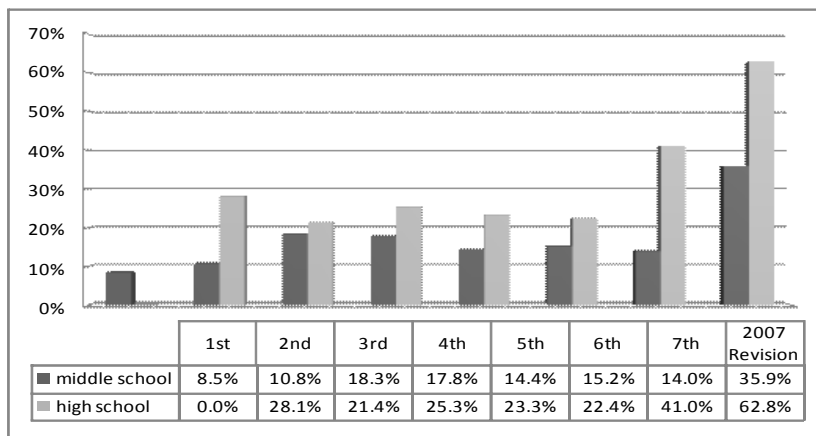


Figure 1. Relative importance of family field in the Home Economics textbook

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성교육의 관점이 여성의 순결교육이 중시되다가 제7차에서는 순결을 남녀 모두가 지켜야 할 것으로 시각이 변화하였고, 2007개정에서는 성역할과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과 관련하여 양성성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임신과 출산’은 임신의 준비, 임신계획, 임신과정, 출산준비, 출산과정, 출산 후 조리 등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특히 출산과 관련해 가족계획은 교육과정별 커다란 차이를 보여, 제2차에서는 인구억제정책, 제6차에서는 성비의 불균형 억제, 2007개정에서는 출산장려의 관점으로 변화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태내기~노년기까지 단계를 살펴보면, 제3차에서는 청년기 발달이 강조되면서 ‘사춘기’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제4차에서는 태내기부터 노년기의 인간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그전까지 ‘어린이 시기’로 다루어진 발달단계가 제4차부터 신생아기, 영아기, 아동기로 나누어 세부적 발달적 특징이 제시되었다.

셋째, ‘부모됨과 부모역할’ 영역은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 ‘부모역할의 특성과 중요성’, ‘부모역할 관련 요인’, ‘자녀양육 행동’, ‘영유아보육’, ‘부모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들 영역은 고등학교에서 주로 다루어졌는데 부모됨의 의미, 부모됨의 동기, 부모역할과 책무에 관한 내용과 영유아보육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내용은 제1차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학습내용이다. 이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됨’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제5차 교육과정으로, 이때 부모됨의 동기로 ‘가문계승’,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인정받기 위함’ 등이 언급되었다. 또 제4차 교육과정까지는 부모의 역할을 어머니 역할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제5차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었다. ‘자녀양육행동’의 경우 제3차부터 강조되어 부모의 양육태도유형(익애형, 거부형, 지배형, 방임형, 수용형)의 장단점을 소개하였다. ‘영유아보육’ 영역은 제1차~2007개정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으로, 제2차 이전까지는 어린이 ‘다루기’나 ‘시중들기’의 용어가 사용되다가 제3차 이후 ‘어린이 돌보기’, ‘양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또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제3차~제5차에 걸쳐 언급되었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 ‘부모교육’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이상 ‘인간발달’ 대영역의 내용을 교육과정별로 정리하면 <Fig. 2>와 같다.

## 2) ‘가족학’ 영역의 내용과 변화

가정교과서 내 ‘가족학’ 영역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결혼과 가족발달’, ‘가족관계와 가족문제’, ‘가족복지’의 4개 중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영역은 ‘가족의 유형과 구조’, ‘가족의 기능’, ‘역할과 권력’, ‘가족가치관’, ‘가족생활주기’, ‘가족과 사회문화’, ‘가족생활문화’, ‘한국가족의 특성’의 8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이 분야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관점의 변화가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지만, 핵가족·확대가족 등의 가족유형과 구조, 성·경제·정서 등의 가족기능, 가족 내 지위에 따른 가족원의 역할은 전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 ‘가족가치관’은 제3차에서 ‘가족이념’, 제6차에서 건전한 가족가치관 확립의 중요성, 2007개정에서는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며, ‘가족생활주기’ 역시 제3차부터 가족형성기, 가족확대기, 가족축소기의 발달과업 중심으로 학습내용이 전개되었다. ‘가족과 사회문화’는 가족과 사회의 상호 연관적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는데 제5차부터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가 강조되었다. ‘가족생활문화’는, 제2차~제6차까지는 ‘가풍’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가족문화가 다루어졌으며 가정의례에 관해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제7차 이후 가족생활문화는 ‘가풍’의 관점에서 접근되지 않았고,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의례는 통과의례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한국가족의 특성’은 제3차~제6차에서 전통과 현대로 대별해 한국가족의 특징이 다루어져, 전자가 만아들 중심, 집 위주 사상, 중매혼이 특징인 반면, 후자는 연애혼, 단가살이를 특징으로 한 가족형태로 소개되었다. 또 이 영역은 제7차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다가 2007개정에서 다시 비중 있는 학습내용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과 가족발달’ 영역은 ‘사랑’,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결혼의 의미와 동기’, ‘결혼준비’, ‘가족발달단계에 따른 가족발달과업과 적응’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결혼과 관련하여 제5차부터 사랑에 관한 언급이 시작되었으며, 배우자 선택의 과정으로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후기로 갈수록 이성교제가 자기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회

라는 개방된 관점이 나타났고, 결혼을 성숙한 사랑과 책임성을 연결해 강조하였다. 배우자 선택은 제2차부터 다루어졌다. 이때 건강, 성격, 경제력(생활력)은 중요한 배우자 선택기준으로 강조되었으나 혈족관계는 초기에, 가치관은 후기에 중시되었다. 또 ‘결혼의 의미와 동기’의 경우 제4차부터 결혼의 의미를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로 나누어 제시된 점이 특징적이며, ‘결혼준비’ 영역에서는 약혼과 결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발달단계에 따른 가족발달과업과 적응’ 영역은 가족형성기, 가족확대기, 가족축소기의 발달단계별 발달과업이 제시되었다.

셋째 ‘가족관계와 가족문제’ 영역은 ‘의사소통’, ‘갈등’,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고부관계 및 조부모-손자녀 관계’, ‘맞벌이가족’, ‘노인가족’, ‘가족스트레스’, ‘가족

폭력’, ‘이혼 및 재혼’의 11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영역은 최근의 교육과정일수록 강조되는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원만한 가족관계와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하여 의사소통과 양성평등적인 가족관을 중요시하였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3차부터 다루어진 의사소통 영역은 제6차 이후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갈등’은 2007개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학습내용이다. 가족 내 인간관계는 초기 교육과정부터 중시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반면 고부관계나 조손관계에 관한 학습내용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제6차 이후 맞벌이가족과 노인가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가족폭력과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은 2007개정에서 특히 중시된 학습내용이다.

넷째 ‘가족복지’ 영역은 ‘건강가족의 개념과 특성’, ‘가족법과 정책’, ‘가족복지의 기초’, ‘생애단계에 따른 가족돌보기’,

중영역	소영역	교육과정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2007개정
Understanding of human development	Concept and characteristics in hum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principle								
	perspective of human development,								
	Theory of human development								
Process of human development	Sex								
	Pregnancy & childbirth								
	Prenatal stage								
	Infancy								
	Babyhood								
	Childhood								
	Adolescence								
	Adulthood·Middle-aged								
Parenthood and parenting	Elderly								
	Meaning and motive of parenthood								
	Characteristic and importance of parenting								
	Parenting-related factors								
	Child-rearing behavi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care								
Necessity of parent education									

□ middle school □ high school □ middle and high schools

Figure 2. Distribution chart of 'Human Development' sphere within Home Economics Textbook by curriculum

‘가족복지서비스’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영역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매우 강조되는 부분이었다. 이

전 교육과정에서는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복지시설의 소개 정도에 그쳤으나,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 생애적 복지를

중영역	소영역	교육과정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2007개정
Understanding about family and a change in family	Family structure				▨	▨	▨		▨
	Family function								▨
	Role and authority in family								▨
	Family value								▨
	Family life cycle								▨
	Change of family and society								▨
	Family life culture								▨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Characteristics in Korean family								▨
	Love								▨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
	Selection of spouse								▨
	Meaning and motive of marriage								▨
	Preparation for marriage								▨
Family relations and family problems	Family developmental task and adjustment according to family development stage								▨
	Communication								▨
	Conflict								▨
	Conjugal relations,								▨
	Parent-child relationship								▨
	Sibling relationship								▨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
	Dual-income family								▨
	Elderly family								▨
	Family stress								▨
Family well-being	Family violence								▨
	Divorce and Remarriage								▨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family health								▨
	Family law and policy								▨
	Basis of family well-being								▨
Family well-being	Family caring according to life cycle								▨
	Family well-being service								▨

▨ middle school ▨ high school ▨ middle and high schools

Figure 3. Distribution chart of 'Family Studies' sphere within Home Economics Textbook by curriculum

제시하여 최근 가족분야에서 가장 강조되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또한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의 가족생활 단원에서 가족돌보기를 다루어 신생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전 생애적인 가족돌보기를 가족복지서비스와 함께 제시하였다. 한편 가족법과 가족정책은 제2차부터 제6차까지 가족관계 법규와 가정법원의 역할을 소개하였다. 이상 ‘가족학’ 대영역의 내용을 교육과정별로 정리하면 <Fig. 3>와 같다.

#### I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가족분야 교육과정별 변천 및 교육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따른 가정교과 교육과정해설서에 나타난 가족분야 대단원을 중심으로 이 분야 학습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의 경우 보진위생 및 아동보육이 가족분야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제2차에서는 가족관계, 제4차에서는 가족원의 성장과 발달, 가족에 대한 이해가 대단원 차원에서 폭넓게 다루어져 후기로 갈수록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간발달 과정’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가족관계와 가족문제’ ‘가족복지’에 관한 내용은 제2차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다루어졌다. 또한 고등학교 학습내용에서 중학교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학습내용은 ‘결혼’, ‘육아’, ‘부모됨’의 부분으로 미래의 가정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52년간의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은 교육과정별로 중학교에서 다루어지던 내용이 고등학교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별 교과서 내 가족분야 비중은 전체 교과서 쪽수 중 가족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과정에 따른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의 외형적 특징은 고등학교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학교의 경우 내용요소의 비중은 제1차부터 2007개정에 이르기까지 10~

30% 사이에 머물렀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변화의 폭이 컸다. 특히 제6차는 22.3%에서 제7차로 넘어가면 41.0%로 그 폭이 18.7% 증가하였고, 또한 제7차에서 2007개정으로는 21.8%로 상승폭이 매우 컸다

셋째, 교육과정에 따른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의 내용 및 변화를 ‘인간발달’ 영역과 ‘가족학’ 영역으로 대별해 정리하면, 먼저 ‘인간발달’ 영역은 ‘인간발달의 이해’, ‘인간발달 과정’ ‘부모됨과 부모역할’의 중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발달의 이해’ 영역은 전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심도 있는 내용이기엔 원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다루어지는 정도였으며, 제5차 교육과정 이후 성인기와 노년기를 포함한 인간발달 전 과정 영역이 강조되어 아동기 이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간발달과정’ 내용에서 변화가 있었다. ‘부모됨과 부모역할’ 영역은 고등학교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며, 부모됨의 의미, 부모됨의 동기, 부모역할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었다. 초기에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술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다 제3차부터 아동발달에 적합한 양육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가족학’ 영역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결혼과 가족발달’, ‘가족관계와 가족문제’, ‘가족복지’의 중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영역의 경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관점의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가족형태 및 가족생활의 다양화 측면이 강조되었다. ‘결혼과 가족발달’ 영역은 고등학교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후기로 갈수록 결혼을 성숙한 사랑과 책임성을 연결하여 강조하였다. ‘가족관계와 가족문제’ 영역의 학습내용은 후기 교육과정에서 크게 강조된 부분으로 의사소통, 갈등, 가족폭력, 가족스트레스의 중영역은 후기로 갈수록 양적으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가족 내 인간관계는 전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하위 요소로 다루어졌으나 후기로 갈수록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관계의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가족복지’ 영역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매우 강조된 학습내용이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가족복지는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복지시설의 소개 정도에 그친 반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의 가족생활 단원에서 가족돌보기를 다루어 신생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전 생애적인 가족돌보기를 가족복지서비스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 가족법과 가족정책은 제2



차부터 제6차까지 가족관계 법규와 가정법원의 역할을 소개하였다.

이상의 내용요소를 제1차~2007개정까지 통시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전체 교육과정 모두에 나타난 내용요소는 ‘부모역할의 특성과 중요성’, ‘영유아 보육’, ‘가족의 기능’, ‘가족의 역할과 권력’, ‘고부관계 및 조손관계’, ‘건강가족의 개념과 특성’이고, 제2차부터 전개된 내용요소는 ‘임신과 출산’, ‘청년기’,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 ‘가족의 유형과 구조’,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결혼의 의미와 동기’, ‘결혼준비’, ‘부모자녀관계’로, 이상의 내용요소가 가족분야의 중심적인 내용요소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발달에 관한 내용은 제4차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내용요소이다. 흥미로운 것은 ‘가족학’ 분야는 ‘인간발달’ 영역에 비해 초기 교육과정에 전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사랑’, ‘맞벌이 가족’, ‘노인 가족’, ‘가족폭력’, ‘이혼 및 재혼’은 제4차 이전에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요소이며, 특히 ‘갈등’과 ‘스트레스’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가족학’ 분야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요소가 많은 것은, 최근의 교육과정이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생활 다양화에 대한 이해 및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의 가족생활역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2007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가족분야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는데 있었다. 가족분야의 내용요소를 통시적 접근을 통해 가족분야의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접근되었다 할지라도 49개 내용요소의 관점의 변화 및 이들 내용요소가 탈락 혹은 추가될 때의 맥락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족학’ 분야는 사회변화에 따라 내용요소가 변동되거나 동일한 내용요소임에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내용요소의 세부적 변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해당 내용요소의 유무만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특정 내용요소가 어떤 비중으로 제시되고 있는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중영역 수준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거나, 가정교

과의 중심 주제인 ‘바람직한 가족상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가족·사회의 태도와 역량’, ‘인구계획과 실천방안’, ‘성역할의 변화’ 등 제1차~2007개정에 걸쳐 관점의 변화가 두드러진 내용요소의 쟁점을 다룰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Middle school national curriculum*. <http://ncic.kice.re.kr/>.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 *Middle school national curriculum*. <http://ncic.kice.re.kr/>.
- 전경선 (1999).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인간 발달 및 가족관계 단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u, Y. J. (1992). *A study on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middle school and the transition of the contents: focusing on the food and nutr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Chae, J. H. et al, (2011). *Instruction to Home Economics Education*. Kyomunsa.
- Cho, B. H. (1991). *Research methods in th home economics*. Kyomunsa.
- Choi, Y. S., & Yoon, I. K. (2008).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photos and illustrations in the practical arts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based on a gender equity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 85-100.
- Choi, J. H. (2002). Analysis of family life part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for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4(1), 15-25.
- Goh, S. O., & Jun, M. K. (2006). A study on the contents of child rearing in household textbooks during the 1920s-30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2), 135-149.

- Jun, M. K. (2004). Analysis of household textbooks for middle high school in colonial ag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3), 1-25.
- Jun, M. K. (2005). *A study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1900-1910's : an analysis of 『Hanmun Gajeonghak』, 『Sinpyeon Gajeonghak』 and 『Sinjeong Gajeonghak』 published by 'Hyun Kong-Ryeo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7(1), 131-151.
- Jun, M. K. (2012). A study of 'families' as presented during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in middle school: focusing on the 'The changing family' of the 2007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2), 29-49. 120
- Jung, S. K. (2004). *Sequentiality analysis of 'family life' section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middle and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 Kim, M. J., & Yoo, T. M. (2004) Content analysis of illustrations in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of the 7th Curriculum by units from the gender equity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4), 27-41.
- Kim, M. H. (2010). *A content analysis of the family-related units in high school textbooks 'social & culture' and home economics' - from the theoretical viewpoint of structure functionalism and conflict the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Kim, M. S. (1989).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middle school: concentration on the housing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Kim, S. H., & Yoon, Y. (2011). A content analysis on multicultural education for home economics area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 of the high school - 2007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2), 73-86.
- Kim, E. K. (2007). A characteristic of hyeonmoyangcheo-discourse for education of girls' school in the 1950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4), 137-151.
- Kim, E. J. (2010). Enhancing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2007 revised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 based on the analysis of 7th grade course book.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2), 81-99.
- Kim, H. M. (2007). *Analysis on home living areas in high-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 Ko, K. I. (1990). *A study on the change of home management education course of a middle school: based on the part of clothing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ukmin University.
-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2008). *Development of eligibility criteria and specification of evaluation areas for home economics teacher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for public policy research report.
- Lee, C. S., Choi, Y. H., & You, T. M. (2001).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objectives and contents of school 'practical arts' and 'technology & home economic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RC-2001-2.
- Lee, Y. S. (2001). Analysis of changes in home management part in home economics textbooks for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3(1), 73-91.
- Park, J. W. (1995). *The comparison and analytic study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on, H. H. (2009). A content analysis on career education in home economics textbook of the secondary school developed by the 7th educational proce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4), 145-158.
- Yang, J. H., & Kim, J. K. (2002). Analysis of the chapter 「I. Me and My Family Life」 in textbooks of a art-home economics with a view of the structural functionalis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40(12), 1-11.

Yoo, Y. J. (2004). *Family Science*. Shinjeong.

Yoon, I. K. (2004). A study on comparison of 6th curriculum and 7th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the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4), 1-8.

####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 및 가정교과서의 가족분야 영역의 내용을 분석하여, 가정과 교육의 가족분야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제1차부터 2007개정까지 가정교과 교육과정해설서 및 총 58권의 가정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이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별 교육과정해설서를 살펴 본 결과, 가족분야의 내용은 가족생활 일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해 후기로 갈수록 가정생활의 전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그 폭이 넓어졌다. 둘째, 교육과정별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의 양적 비중은 후기 교육과정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셋째, 교육과정별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과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간발달의 이해’는 제3차~제6차 사이에 원론적인 내용이 강조되었고, ‘인간발달과정’은 초기에는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제시되다가 제5차 이후 인간발달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부모됨과 부모역할’은 부모역할과 책무에 관한 내용과 영유아보육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관점의 변화가 컸고, 후기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가정의 유형이 강조되었다. ‘결혼과 가족발달’은 결혼에 대한 관점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고, 결혼을 성숙한 사랑과 책임과 연계해 설명하였다. ‘가족관계와 가족문제’는 최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영역으로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하여 의사소통과 양성평등적인 가족관을 중요시하였다. ‘가족복지’ 영역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부각되는 영역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8월 15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9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0월 17일